

보도자료

■ 홍보반 : 반장 이원길, 반원 성진영
(☎ 3270-9131, 9134)

자료문의 / 행정지원반 ☎2071-2508, 2509 반장 김재현 반원 김도훈

‘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’을 위한 공청회 개최

-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-

-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(위원장 : 양봉민 교수)는 '03년 7월 재정통합을 앞두고 건강보험의 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로 구성('03. 5. 31)된 보건복지부장관 자문위원회로서,
 -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중·장기적 발전방향에 맞는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였으며,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
- 2004년 8월 27일(금) 오후 14:00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당에서 열린 ‘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’을 위한 공청회에 의약계, 가입자 단체, 시민사회단체, 학계, 출입기자 등 200여명이 참석함
 - 발전위원회가 전문가 위주로 구성·운영되어 참여하지 못했던 의협·병협·약사회 등 의약계단체, 양노총·경영계 등 가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하여 정책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
-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보험재정, 보험급여, 보험서비스개선 등 산하에 3개 전문위원회를 두었고, 세부적인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각

과제별로 현황과 문제점,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쳤으나 주제에 따라서는 관련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됨

□ 그 주요 내용으로는

<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>

- 2000년 7월 조직통합 이후에도,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하여 직장·지역간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가 유지됨에 따라, 직·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과체계 개발에 대한 당위성은 높아지고 있음
-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, 실현가능성, 국민의 만족도, 합리성 등의 기준에 따라 연구용역과제에서 제시된 4개 방안을 검토함
 - 그 결과, 단기적으로는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과,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(연간소득 500만원) 일원화 등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고,
 -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등 가입자의 능력에 맞추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소득기준 단일부과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

< 보험재정 국고지원의 방법 및 수준 >

- 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'02~'06년까지 지역가입자 급여비용의 50%(국고 40%, 건강증진기금 10%)를 지원하고 있으나,
 - '07년부터 전체 가입자 요양급여비용의 20%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
- 기타 주세, 교통세 등 건강부담금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음

<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>

-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는 진료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적절한 진료가 행해질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
 - 단기적으로는 상대가치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포괄수가제(DRG)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,
 - 장기적으로는 진료비 총액 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총액관리제를 도입하고, 총액의 범위 내에서 부문별 총액과 행위별로 적합한 지불방식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
- 그간 의료계는 국민경제에 상응하는 진료비 총액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으며,
 - 가입자 단체는 진료비 지출규모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지불제도 및 심사평가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음

< 약제비 관리방안 >

- 보험의약품 등재업무를 현행 비급여목록(negative list)에서 급여목록(positive list)으로 전환하도록 하고,
 - 의약품 등재기준에 있어 선발의약품은 비용효과성을, 후발의약품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
- 상대적으로 고가인 신약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가격과 수량을 연동시켜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

< 의료의 질 관리 및 효율적 진료기전 확보 >

- 요양기관 지정방식을 당연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

-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가입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,
- 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여건 및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 마련도 함께 검토하기를 권고하고 있음
- 기타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진료의 적정성 평가, 고가의료장비 관리방안 마련, 진료지침의 개발지원 등이 제시됨

< 건강보험공단(보험자)의 역할 재정립 >

- 통합공단은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료율, 급여범위 등을 1차 결정하고,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, 복지부는 이를 조정·승인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

※ 보험료 및 급여 등의 결정기구 :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∼'06) → 가입자위원회('07∼)

- 공단이 보험자로서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종래 정부가 관장하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가입자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전제되어 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음
-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1년여 기간의 활동과 이번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발전적 해체를 하였으며,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임

♣ 첨 부 : <참고자료> 공청회 개요

♣ 별 첨 :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

공 청 회 개 요

◇ 일 시 : 2004년 8월 27일(금) 14시~17시

◇ 장 소 : 국민건강보험공단 B1 대강당

◇ 순 서

㉠ 13:30~14:00 등 록

㉡ 14:00~14:10 개회식 < 인사말 : 양봉민 위원장 >

㉢ 14:10~15:10 발 제 < 국민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>

♣ 발표자

- 보험재정 : 박재용(경북대 교수)

- 보험급여 : 최병호(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)

- 보험서비스 : 이태수(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)

㉣ 15:10~15:30 휴 식

㉤ 15:30~16:40 토 론

♣ 토론자

- 감신(경북대 의과대학 교수), 강주성(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),
김태현(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), 백종만(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),
신석우(한국제약협회 전무이사), 신창록(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),
이동호(한국노총 기획조정실장), 이성식(대한병원협회 경영이사),
이수연(세종대 사회과학대 교수), 이은동(대한약사회 보험이사),
이호성(한국경영총연합회 경제조사본부장),

㉦ 16:40~17:00 질의응답 및 폐회